

명사칼럼

공교육 내실화는 수업 방법의 개선에서부터



신상철
대구광역시 교육감
053-757-8102

공교육 내실화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육 정책 입안자로부터 교육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주체가 한결같이 인치된 복소리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 한국 사회의 역량을 높이고 현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공교육 내실화의 노력은 정부의 공약에서부터 인선 교육청의 정책 및 학교 경영에서까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교 시설 및 교실 환경 개선과 교원 치우 개선, 학습 기자재 확충 등을 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교원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열정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해 주는 지원과 정책이라고 본다.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특히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내실화의 질대적인 성공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성과 달성 위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학생 개개인의 진보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학급 단위 집단 전체를 획일적으로 취급하고 한꺼번에 교육하는 방식의 수업이 선호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인제식 주입 교육, 교사 활동 중심의 교과서 해설식 수업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교실에서 교사는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지식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쓰고, 암기만 하는 학습을 해 왔다.

이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제식, 해설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돕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의 해설판 자세히 듣고 그렇다, 그렇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한들 학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교육은 허망한 것이다. 교사의 시범이나 세시된 모델을 보고 흉내를 잘 내고 모방을 잘 하는 것 정도를

교육이라고 보는 것은 옛날 일이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서 자신만의 가치와 생각이 뿔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들이 머리를 써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해 주지 못했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 '아하!' 하고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단계의 통찰을 얻는 순간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선생님이 정답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에 바빴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것' 또는 '수입은 교사의 머리 속에 든 지식을 학생에게 설명해 주고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옛날 사고방식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버려야 한다.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은 언제까지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만을 기록하고 암기하려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혼자 힘으로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지식은 참 지식이며 평생을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지식이 될 것이다.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하고 박힌 곳을 뚫어주는 학생에 대한 학습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실 현장의 수업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수업 방법과 일반인의 수업 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

교사 활봉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활봉 중심의 수업으로,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이해 위주의 학습으로, 점수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소질·특기 계

발 위주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제도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으면 한다.

| 기술표준 2008.11